

종립학교를 가다

(14) 금정중학교

'유재명군 유엔아동특별총회 한국대표 선정' 부산시 범어사 사하촌에 위치한 금정중학교 교문에 걸린 현수막 문구다. 영어회화반 회원인 유재명군은 9월 16일 미국 뉴욕에 위치한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아동특별총회에 한국대표로 참석, 기조연설을 했다. 이는 그동안

금정중학교가 학생들의 소질을 개발하고 창의성을 길러주기 위해 실시한 특기적성교육의 성과다.

금정중학교에는 취미와 관심을 같이 하는 학생들이 결성한 체육, 취미, 학예 분야의 50여개 동아리가 있다.

동아리 50여개 ... 특기교육 자랑

그 중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아리는 K.I.C(Kumjong Internet Club)라 불리는 인터넷부와 편집부, 불교보이스카웃, 영국영상반 '해오름', 레슬링부 등이다. 특히 창단 10년이 넘는 레슬링부는 지난 6월 전국소년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고 정석화, 강진규 등 국가대표를 배출하기도 했다. 또한 영국영상반은 방학을 반납하고 매일 학교에 나와 연극연습을 해 지난 9월 8일 금정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이문열 원작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무대에 올렸다. K.I.C도 학교신문과 인터넷 신문(http://www.kjgw.com)을 발행하며 학교를 알리고 있다.

종립학교로서의 신형 활동은 단연 전국 최고를 자부한다. 불교학생회, 전국 유일의 불교보이스카웃 지역대인 선재지역대, 명상수련반, 파라미터학생회 등 불교관련 동아리들은 정기 법회는 물론 부처님 4대 명절 기념 법회, 1080배 철야정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신심을 키우고 있다. 또한 교직원 가운데 7명이 포교사로 활동하고 있고, 매년 수제식을 개최해 교직원 100%, 학생 60% 정도가 계를 받았다.

학생들에 못지않게 학부모들의 신념도 대단하다. 매달 100여명이 한차례 법회를 보는 불자어머니회(회장 강성덕)는 수련대회 등 학교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 도움을 주고 있고 매달 신심일반 보시금을 모아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하는 등 무주상 보시를 실천하고 있다. 또한 임원들이 운동회를 구성해 경전공부도 열심이다.

체험학습을 통한 환경실천교육은 금정중학교만의 특색있는 프로그램이다.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해 법기, 회동수원지, 명장 정수장, 생곡 쓰레기 매립장 등을 견학하고 온천천과 낙동강 생태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다. 생태탐방 및 오염 현장 견학은 학생들에게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고 자연의 소중함을 스스로 깨닫게 만들고 있다. 이



◇부산범어사에서 설립한 금정중학교는 10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지역 최고의 명문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사진은 선재지역대의 활동모습.

학생대표 유엔아동총회 연설
교직원 100% 학생 60% 수제

낙동강 조사 등 생태탐방도
멀티미디어 이용 첨단교육

같은 교육적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실천수업공모에 응모, 올해 부산시 교육청으로부터 5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금정중학교의 모든 교실에는 펜티엄III 컴퓨터, OHP, 43인치 대형 프로젝션 TV 등 최신 교육 기자재가 갖춰져 있다. 그만큼 정보화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금정중학교는 최근 교과서 중심의 전통적 학습방법을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수업으로 개선하고 있다. 개인 눈높이에 맞는 학습자료를 통해 학생들에게 정보사회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키워 스스로가 학습의 주체가 되는 평생학습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학습자료 개발실을 운영, 과목별 최신 학습자료를 비치하고 선생님들이 교재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수업방법의 변화는 학생들의 인격형성

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수업시간 또는 학교에서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고민들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이성, 진로, 인생에 관한 고민을 선생님과 이메일로 상담하고 있고 이를 통해 학생과 교사의 신뢰가 쌓이고 있다.

1909년 범어사 침체기에서 처음 당간을 올린 지방학림(중등교육기관정도를 모태로 교육불사에 매진하기 시작한 금정중학교는 일제시대 두 번이나 폐교당하는 아픔을 겪었지만 46년 금정 초급 중학교라는 이름으로 재 개교해 현재 이사장 벽파스님의 후원아래 1,118명의 청보리들이 '민족학교', '지역 최고의 명문사학'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김두식 기자 doobri@buddhapia.com

“인생 얘기하며 불심 퍼트려”



◇현익채 ◇이준군 ◇이석연

에이션 등 교육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해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옆집 아저씨와 같은 포근한 인상의 이준군 교법사는 교학시간에 불교관을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이야기를 한다. 봄에 농부가 밭에 씨를 뿌

리듯 교학시간에 인생을 이야기하며 불교라는 씨앗을 뿌린다는 것이다. 그는 또 타종교를 믿는 학생들에게 남의 종교를 알아 자기종교를 더 이해하고 믿음이 깊어진다고 가르친다. '나'라는 것보다 '우리'라는 의미를 심어주기 위해서다.

이석연 교법사도 교학수업방법이 기존의 강의식이면 안 된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불교야사, 역사, 문화 이야기를 통해 불교를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고 있다. 특히 그는 고등학교시절부터 연극을 한 경험을 살려 연극영상반을 운영하며 학생 지도에 여념이 없다.

교법사실에서

현익채 · 이준군 · 이석연 교법사

종립학교 가운데 교법사가 가장 많은 학교가 바로 금정중학교다. 교학에 그만큼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3명의 교법사 가운데 현익채 교법사는 말행이나 다름없다. 장남이 집안의 기둥이듯 금정중학교 불교활동은 현 교법사를 빼놓고 말할 수 없다. 69년 대불련 활동을 시작으로 불교에 귀의한 그는 부산불교고등학교를 지도한 인연으로 청소년 포교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불자신행의 길잡이>, <청소년 법회 길잡이> 등의 책을 편찬하며 청보리들에게 올바른 신행의 방향을 제시했다. 지금도 레이크리

불교레크리에이션협 지도자 과정 개설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정호 스님)는 17일부터 12월1일 까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강의실에서 '불교레크리에이션 2급 지도자 과정'을 개설한다. 매주 월·금요일 저녁 7시부터 3시간동안 마련되는 이번 강좌는 특강과 종합실습을 포함해 총 72시간동안 진행된다.

이성훈 선재이벤트 실장 등 불교계 전문 강사들이 강의할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불교교리 △레크리에이션 개론 △스포츠댄스 △노래지도 △만들기 △실내외 게임 △캠프 교육 △이벤트 및 야외활동 진행 실습 등의 일정으로 꾸며진다. 교육비는 교재와 실습비를 포함해 3만원이며, 60시간 이상 이번 과정을 이수하면 수요강좌 프로그램에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02)738-7860

“지식보다 인간존중 교육”

금정중 유기운 교장



75년 부임해 33년을 근무한 유기운 교장은 금정중학교의 터줏대감이다. 학교 구석구석에는 그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다. 유 교장은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 보다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학생과 교사간 그리고 교사와 교사, 학생과 학생간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의 왕따와 같은 사회적 문제는 발생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인간존중이 올바른 교육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매일 아침 법당에 들려 부처님을 참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유 교장은 불교의 자비와 평등사상에 입각한 인성교육을 강조한다. 그는 또 불교장학금이 1년에 천만원이 넘는다며 장학금 하나만 봐도 지역 최고의 수준이라며 은근히 자랑한다.

3·1운동, 4·19 기념탑 위용



금정중의 자랑

3·1운동 당시 금정중학교의 전신인 지방학림 학생과 동문들이 '一死는 자유를 얻는 것만 같지 못하다'라는 독립사상을 고취하는 격문을 수백대 작성하여 동태시장에 뿌리고 동태경찰서로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34명의 학생들이 재판을 받았고 일제에 의해 강제로 폐교를 당하는 비운을 겪었다. 1926년 다시 개교한 후 43년 12월 1일 조선어학회 사건에 당시 금정학원 김법린 원장이 관련되어 두 번째 폐교를 당했다. 교문을 들어서면 안쪽에 서있는 3·1운동 유공비는 이를 기리고 있다.

"잃은 주권과 빼앗긴 자유를 한사코 찾겠다는 거레의 비원이 ... 동래 시장통에서 젊은님들이 민족의 정기에 호소하고 우리 주장을 널리 선포하여 만세 소리가 하늘에 진동하고 온집한 군중이 거리를 매우 었을 때..." 3·1운동 유공비에 새겨진 비문의 일부본이다. 짧은 글이지만 민족의 독립을 위해 싸운 금정인의 굳은 기개를 느낄 수 있다.

한편 3·1운동 기념탑 옆에는 4·19민주혁명추모탑이 서있다. 이 추모탑은 4·19민주혁명 당시 금정중학교 출신의 신정용 열사가 경찰의 무차별적인 총격으로 서거한 것을 추모하기 위해 1981년 세워졌다.

민족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해 죽음까지 불사했던 숭고한 정신. 금정중학교 학생들은 매일 등교 때마다 금정의 살아있는 정신을 되새기고 있다.

청소년 단신

신라문화원 불우아동 초청 기림사 등 불교문화 탐방

신라문화원은 14일부터 2박3일간 서울·부산 대구지역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불교문화 탐방'을 실시했다. 총 1백여명이 참가한 이번 탐사에서는 경주문화유적 슬라이드 강의를 비롯해 불국사, 분황사, 기림사 사찰탐방과 사찰예절 실습, 골짜기 선무도 수련체험 등의 일정으로 진행했다.

성준장학금 6천만원 전달

속초 신홍사 성준장학재단은 15일 신홍사 포교당 원각사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거행했다. 신홍사 주지 미근 스님 등 3백여명이 참석

한 이번 행사에서는 스님 9명, 중 고생 47명, 대학생 44명 등 총 1백명에게 6천4백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성준장학재단은 지난해 10월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속초 관내 중·고 대학생들을 위해 신홍사에서 설립했다.

진각중 '자성동이' 재창간

진각중 총리원 포교부는 9월말 어린이 월간 포교잡지 <자성동이>를 재창간한다.

이번에 나온 10월호에는 이달의 시를 비롯해 불교전설, 한자공부, 자성찾는 이야기, 우리들 속씨, 생활속의 지혜 등 다양한 내용들이 소개돼 있다. 진각중은 어린이 포교잡지 연구와 함께 <자성동이>를 매달 2천권씩 제작해 전국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선옥의
선무 건강법 ⑬



• 스트레칭 •

무릎을 양다리에 고르게 씌는 다.

팔·발 들고 내리며

4. 단전을 이완하면서 오른발을 왼발옆으로 나란히 내려놓는다. 이때 오른손은 팔목을 돌려 기를 손가락을 통해 보내고, 다시 손목을 이완해 천천히 팔을 앞으로 가져와 처음의 단전 자세로 돌아온다.

단전 기 모으고 퍼

5. '뒹' 소리와 함께 왼쪽발로 처음부터 다시 반복한다.
6. '포' 소리를 내면서 다시 오른발로 시도하고, 손은 양손을 함께 시도한다.

불교를 가장 쉽게 만나는 길

한눈에 불교가 보인다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세계로 열린 불교정보의 산실, 현대인을 위한 디지털 법당. 도서관에서 책을 펼치듯 인터넷에서 가벼운 클릭으로 정보여행을 떠나자! 아름답고 넉넉한 부처님 세상이 있는 곳으로...

맛 최고, 멋 최고 기분 최고 쇼핑을 즐기는 곳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슈퍼마켓? 유명백화점? 거기에는 없습니다. 불교용품을 한곳에서 만날 수 있는 불교쇼핑 전시장! 주문도 배달도 안방에서... 문화쇼핑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불교뉴스 오늘 읽고 본다
일간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를 만나는 일주문 붓다뉴스를 클릭하는 순간! 따끈 따끈한 불교뉴스에서 신행정보, 생활상담까지 불교의 모든 것을 그날 그날 접하게 됩니다.

클릭 한번으로 책주문이 가능합니다
여시아문 닷컴 www.yosiamun.com

2만여 불교서적이 검색 클릭 한번으로 딱딱!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여시아문이 주문에서배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책임집니다.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02) 737-0695